

# 경무국납본목록으로 본 일제강점기 납본 연구\*

## A Study on the Deposi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ased on the Deposit List of the Central Police Bureau

한 지 수 (Ji-Su Han)\*\*

이 혜 은 (Hye-Eun Lee)\*\*\*

### 초 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행한 경무국납본목록을 분석하여 발행 정보와 수록 도서의 특징 및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당시 사회적 경향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대상은 1937년 1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경무국납본목록 95개호에 수록된 납본 자료 6,053건이다. 연구의 결과 납본 도서의 주제는 '어학·문학', '교육·사회'가 가장 많은 반면, '이학·의학', '공학·군사'가 가장 적었다. 발행인은 주제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조선총독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발행 지역은 경성을 중심으로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대도시에 집중되었으며, 발행 가격의 경우, 대부분 2圓 이하 또는 비매 자료가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시국 변화에 따라 일본어 교육 도서 증가, 족보류 감소, 공간 범위 확장, 독본·법률의 성격 변화, 전쟁 관련 문학 및 전기류 증가 등 총 5가지 특징이 있었다. 납본 목록을 동시대 일본 납본 통계와 비교한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전시 체제 강화로 중요도가 하락하면서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주제 납본이 감소하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납본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전시 동원과 식민지 통치 전략의 영향을 받아 구성되고 변화해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Deposit List of the Central Police Bureau, published by the Police Bureau of the Joseon Govern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the aim of exploring its background and publication context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osited records, including 6,053 records from 95 issues. In results, the subjects most frequently represented were Language and Literature, and Education and Society, whereas Science and Medicine, Engineering and Military were the least. Publisher types varied by subject, with the Joseon Government appearing most frequently. Geographically, publications were concentrated in Gyeongseong (Seoul) and major cities, including Daegu, Busan, Gwangju and Jeonju. Most publications were priced below two won, with some were non-commercial. Five wartime trends were identified: an increase in Japanese language education materials, a decline in genealogical publications, the spatial expansion of maps, shifts in textbook and legal publications, and a rise in war-related literature and biographies. Although there was a difference in overall scale, both Language and Literature and History and Geography showed declining trends consistent with patterns observed in contemporary Japanese deposit statistics, reflecting the reduced importance under wartime.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identify how the deposits were organized and transformed in colonial period.

키워드: 경무국납본목록,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경무국, 검열, 납본

The Deposit List of the Central Police Bureau, Japanese Colonial Period, Joseon Government, Central Police Bureau, Censorship, Deposit

\* 이 논문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 콜레주드프랑스 한국학연구소 도서관 KF인턴(jisu.han@college-de-france.fr) (제1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helee@sookmyung.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5년 8월 25일 논문심사일자 : 2025년 9월 3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9월 8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3): 355-378, 20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5.36.3.355>

© Copyright 2025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10년 일본은 한일병합에 따라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가운데 조선총독부 산하 경무국은 1919년 3·1운동 이후 헌병경찰제가 보통경찰제로 전환되면서 신설되었으며, 식민지 경찰 행정을 전담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12). 경무국 도서관은 신문, 잡지, 출판물 검열을 실시하고 도서의 자유로운 유통과 사상 교류를 제한하였다.

일제강점기 도서 발행은 1909년 제정된 출판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은 후 경무국에 제본 2부를 제출하는 납본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검열 통과를 위해 작가들은 내용을 조정하거나 전쟁을 선전하는 서사를 창작하였고(이중연, 2005), 이로 인해 작품은 본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문한별, 2017). 이러한 검열 체계 아래에서 수집된 도서는 『조선출판경찰월보(朝鮮出版警察月報)』에 ‘조선내출판단행본납본목록(朝鮮內出版單行本納本目錄)’으로 수록되었고<sup>1)</sup> 조선총독부도서관 기관지 『문헌보국(文獻報國)』에 ‘경무국납본목록(警務局納本目錄)’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다. 특히 경무국납본목록은 『문헌보국』에서 1937년 1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8년간 95개호에 걸쳐 간행되었으며, 총 6,053건의 납본 자료가 수록되었다. 납본 목록은 납본의 가격, 발행지,

발행소, 저자 등의 서지사항을 포함하였고 종교, 교육, 정치,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였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일제강점기 정책과 통치 전략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며, 동시에 검열을 거쳐 형성된 출판물의 분석은 당시 사회 실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무국납본목록은 『문헌보국』의 일부로만 소개되었을 뿐, 목록 자체와 수록 자료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경무국납본목록의 발행 배경과 체제를 검토하고, 수록 도서의 유형별 특징과 변화 양상을 통해 당시 납본이 반영하는 사회적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경무국에 납본된 도서 목록은 1937년부터 조선총독부도서관 기관지 『문헌보국』의 경무국납본목록으로 수록되어 1944년 12월 폐간될 때까지 게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보국』 제3권 제1호(1937년 1월)부터 제10권 제12호(1944년 12월)까지의 경무국납본목록 총 95개 목록과 목록 내 수록된 6,053건의 납본 자료를 정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무국납본목록의 구성과 체제, 발행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구성과 체제 분석에서는 원표기, 권수, 편저자, 발행지, 발행소,

1) 『조선출판경찰월보』에는 1930년 6월부터 1931년 3월까지 800건, 1937년 3월부터 1938년 12월까지 557건의 목록이 수록되었다(문한별, 2017). 그러나 이 목록은 특정 시기의 자료만 포함하여 연속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경무국납본목록은 1937년 1월부터 1944년 12월까지 경무국에 납본된 자료가 수록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납본의 전반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목록이라 할 수 있다.

가격 등 목록을 구성하는 항목 변화를 파악하고, 발행 사항 분석에서는 목록의 발행 정보와 편집 방식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어로 된 납본목록의 원문 전체를 번역하고, 각 항목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둘째, 납본 도서 6,053건의 주제별 재분류를 실시하였다. 권호별로 상이한 분류 기준을 보완하고자 일제강점기 관립도서관이었던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 사용된 조선총독부도서관 분류표를 바탕으로 주제명 표목을 정리하고 재분류하였다.

셋째, 주제, 발행인, 지역, 가격 유형별 납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주제의 경우, 재구성한 목록을 바탕으로 10개 주제별 납본 건수를 정리하였다. 발행인은 전체 납본 자료 6,053건 중 발행인이 누락된 62건을 제외한 5,991건을 대상으로, 50건 이상 납본한 발행인과 주제별 10건 이상 납본한 주요 발행인을 검토하였다. 이때 제4권까지 발행인이 아닌 편저자로 기재된 인물은 발행에 참여한 주요 인물로 간주하여 발행인 범주로 통합하였다. 발행지는 제3권 제1호부터 제4권 제3호까지 기재된 944건에 한해 조선 8도와 경성, 일본 내지(内地)로 분류하였다. 이때 '제주읍'과 '개성'은 당시 행정구역 체계(국사편찬위원회, n.d.)에 따라 전라도와 경기도에 각각 포함하였다. 납본 가격의 경우, 제3권 제1호부터 동권 제8호까지 기재된 360건 가운데 복수의 가격이 기재된 11건을 제외한 349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국 변화에 따른 납본의 5가지 양상을 도출하고, 일제강점기 조선과 일본의 납본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작성한 '國立図書館に納本された図書の部門別、年次別統計表(G・H・Qの要請により作成せるもの)'<sup>2)</sup>를 참고하여 1937년부터 1944년까지의 통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조선총독부도서관 분류표와 주제가 동일한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통계를 활용하였다.

### 1.3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검열 주제와 검열 문건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검열 주제에 관하여 정근식과 최경희(2006)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1920년대 후반 출판 경찰의 체계화를 고찰하고 『출판경찰보(出版警察報)』와 비교하여 일본과의 연계를 논증하였다. 손지연(2007)은 검열관과 검열 기관의 통계 및 회고록을 분석하여 검열 특성을 검토하였고, 박헌호와 손성준(2010)은 『조선출판경찰월보』의 변화를 바탕으로 발행을 세 시기로 구분하고 문학 체제와 구성을 분석하여 일제강점기 문학의 고립을 평가하였다. 문한별(2013a)은 『조선출판경찰월보』와 『조선총독부금지단행본목록(朝鮮總督府禁止單行本目錄)』 내 출판금지 및 압수 단행본 소설을 검토하여 자기 검열의 과정을 확인하였고, 문한별(2019)은 『조선출판

2) 國立図書館(1928.01. - 1945.09.), 國立図書館に納本された图书の部門別、年次別統計表G・H・Qの要請により作成せるもの. <https://doi.org/10.11501/11493747>. 이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 통계표'로 표기함.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 통계표는 1948년 연합국 최고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1928년 1월부터 1945년 9월까지 납본 자료를 8개 주제로 정리하였다.

경찰일보』 내 ‘불허가 및 삭제 기사요지’ 아동 서사물 31편을 분석하여 검열 사유를 민족주의·반일사상, 사회주의사상·계급투쟁, 현재제 비판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우시지마 요시미와 문한별(2017)은 『이수입불은 인쇄물기사개요(移輸入不穩印刷物記事概要)』를 일본과 타국으로 구분하여 검열 사유를 문학 작품 검열, 공산주의·무정부주의·여성해방운동, 민족주의·배일사상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한편 출판물 납본 목록에 관해서는 경무국납본목록 발행 이전 『조선출판경찰일보』 내 수록된 ‘조선내출판단행본납본목록’이 분석된 바 있다. 문한별(2013b)은 『조선출판경찰일보』에 수록된 1930년 6월부터 1931년 3월까지의 조선내 출판 단행본 납본 800종을 현존 도서와 비교하여 미확인 소설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문한별(2017)은 1930년 6월부터 1931년 3월까지와 1937년 3월부터 1938년 12월까지의 납본 시기별 변화를 분석하여 조선어 도서 납본의 부재와 일본어 도서의 관제 출판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출판 양상이 조선총독부의 체계적인 계획과 통제 아래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납본 연구는 검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납본 목록 자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특히 납본 목록 연구는 『조선출판경찰일보』에 한정되었으며, 그 이후 납본 목록의 존재와 특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하여 일제강점기 납본 연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보국』 내 경무국납본목록이 수록된 배경과 특징을 살피고, 납본 자료의

변화를 시대적 맥락과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조선과 일본의 검열 조직

근대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출판과 언론에 대한 통제 체계를 정비하였다. 특히 1873년 내무성(內務省) 설치와 신문지조례(新聞紙條例) 포고를 통해 근대적 출판 통제는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名津子 尾崎, 2019). 출판 통제의 공식적인 권한을 확보한 내무성은 중앙행정 내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며 최고 관청으로 자리잡았다(康弘 輿平, 1967).

내무성은 정치적 불안 해소와 지방 현 경찰관리를 위해(Mitchell, 1983) 1881년 경보국(警報局)을 설치하고, 1882년에는 도서국(圖書局)에서 납본 업무를 이관받아 권한을 강화하였다. 1886년에는 총무국(總務局) 산하에 신설된 도서과(圖書課)가 도서 출판 및 판권 관리 업무를 전담하였고, 경보국 보안과(保安課)는 신문·잡지 검열, 정치·풍속 관련 도서 업무를 다루었다. 이후 1893년에는 모든 검열 업무가 경보국 도서과로 통합되며 내무성 중심의 검열 일원화 체제가 확립되었다(김기태, 2012). 초기 검열 책임은 1897년 경시총감에게 있었으나, 1908년 4월부터는 고등경찰(高等警察), 1911년 8월부터는 특별고등과(特別高等課)가 역할을 이어받았다. 특별고등과는 외사, 특별고등, 노동, 내선, 조정, 검열 6개 부서로 분업하였으며, 1911년부터 1916년 사이에는 일본의 모든

현에 특별고등경찰 부서가 설치되어 지역 단위 검열도 체계화되었다(Mitchell, 1983). 1930년대에는 1932년 경시청 특별고등경찰과(特別高等警察課)가 부서로 확대되었고, 검열 부서는 독립적인 검열과(檢閱課)로 분리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내무성은 자유주의 및 좌파 성향 잡지와 출판물을 금지하고, 기존 발행물에 대해서도 추가 검열을 시행하였다. 1940년대에는 사전검열 뿐 아니라 기존 자료 재검토가 늘어나 행정 금지 건수가 증가하였다. 검열은 검열과를 중심으로 계속되었지만, 전쟁 심화로 군 영향력이 증대되어 군사적 통제의 일환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무성 중심 검열은 출판물을 국가 통제의 주요 대상으로 다루었으며,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어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조선의 검열은 경무국(警務局)의 고등경찰과와 도서과(圖書課)가 담당하였다. 1925년까지는 고등경찰과가 단독으로 검열과 출판 허가를 담당하였으나, 인쇄 출판 문화의 성장으로 검열 제도의 전문화와 체계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고등경찰과는 폐지되고, 검열 업무는 1926년 도서과로 이관되며 도서과 중심의 검열 체제(검열연구회, 2011)가 본격화되었다. 1930년대 들어 도서과는 조선 내 출판물 외, 일본 및 외국에서 반입되는 출판물에 대해서도 사전 검열을 수행하여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선별적으로 반영하였다. 또한, 검열체제를 기반으로 도서과는 선전 활동과 조직 결성 등 사회 통제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 전시 체제가 강화되면서, 도서과는 1943년 12월 1일 조선총독부 기구 개편에 따라 폐지되었고 검열 업무는 경무국 보안과(保安課)로 이관되었다.

이 시기부터 전시 총력체제가 본격화되며 출판·언론 검열도 군부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경무국 도서과는 전시 체제의 흐름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출범 이후 출판 검열을 전문화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기존 검열 결과 정리와 분석은 도서과 출범 이후 체계화되고(정근식, 최경희, 2006), 문서화되어 1937년 1월 경무국 납본목록으로 간행되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조선과 일본의 검열 조직 변천은 <표 1>과 같다.

## 2.2 조선과 일본의 도서 검열과 납본

일제강점기 조선의 납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출판되는 모든 도서는 사전 검열을 통과해야 했으며, 출판 후에도 납본되어 관리되었다. 출판법(1909)에 따르면 저작자 및 관청은 출판을 위한 초고를 지방 장관(한성부는 경시총감)을 경유하여 내부 대신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했으며, 허가를 받아 문서와 도화(圖畵)를 출판할 때는 즉시 제본 2부를 제출해야 했다. 즉, 도서 출판을 위해서는 총 두 단계에 걸친 납부가 이루어졌다. 허가 신청을 위한 검열본 1차 초고 납부, 허가 후 출판 시의 2차 제본 납부가 수행되었다. 또한, 통감부는 일본 내 출판법에 해당하는 조선의 출판규칙(1910)을 제정하여 조선 내 일본인의 출판물 간행에 관여하였다. 출판규칙에 근거하여 조선 내 일본인은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의 출판법과 예약출판법을 따르며 일본과 밀접히 연결되었다. 결과적으로, 같은 조선 내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통제 수준에 차

〈표 1〉 조선과 일본의 검열 조직 변천

연도	조선	일본
1873	-	내무성 설치
1881	-	내무성 경보국 설치
1882	-	내무성 경보국 납본 사무 관장
1886	-	총무국 도서과 설치
1893	-	경보국 도서과 검열 업무 통합
1897	-	경시총감의 검열 담당
1905	경무부 고등경찰과 설치	-
1908	-	고등경찰의 검열 담당
1911	-	특별고등과의 검열 담당
1919	경무부, 경무국으로 개편	-
1926	고등경찰과 폐지 도서과, 독립부서로 분리 경무국 도서과의 검열 담당	-
1932	-	특별고등과, 특별고등부서로 승격 검열부서, 검열과로 승격
1937	경무국납본목록 간행	-
1943	도서과 폐지 경무국 보안과로 검열 업무 이관	-

이가 존재하였다. 제출된 도서의 검열은 조선 총독부 경무국 산하 도서과에 의해 수행되었다. 검열을 받았던 초고 1부, 검열 후 제출한 납본 2부까지 총 3부는 경무국과 학무국(學務局)에 보관되었다. 이들은 ‘검열제’, ‘출판허가’, ‘납본 등록번호’ 등으로 구분되어(유춘동, 2016) 조선 총독부도서관과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이관되었다. 이후 조선총독부도서관은 『문헌보국』에 조선 내 발매금지 도서와 문부성 추천 도서를 정리하여 불온서적은 차단하고 바람직한 도서를 소개하였다(김선영, 2023). 경무국의 납본과 검열은 국가 권력이 사회 전반에 개입되는 수단으로 기능하였고, 출판물에는 조선총독부가 허용하고자 한 주제와 배제하고자 한 담론이 반영되었다.

한편, 근대 일본은 1875년부터 납본 제도를

실시하였다. 전전(戰前) 일본의 납본은 문부성과 내무성에 의해 수행되어, 출판조례(1875)에 따라 출판 전 내무성에 사전 신고하고 검열을 받아야 했다. 이때 발행인은 출판을 원하는 판과 초고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았으며, 그 가운데 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출판·판매가 금지되거나 각판이 훼손되었다. 개정된 출판조례(1887)는 납본 범위, 납본 기한, 도서 사전 검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본과 조선 간 출판법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은 1차 제출본에 대한 허가 후 출판과 납본이 이루어지는 인가제를 시행한 반면, 일본은 출판 신고 후 납본을 수행하는 신고제를 따랐다. 즉, 식민지 조선에는 일본보다 더 체계적인 검열과 복잡한 납본 절차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납본 제도는 조례에서 법령으로 확장되어 출

판법(1893)으로 발표되었으며, 제출 제본 부수는 기존 3부에서 2부로 축소되었다. 출판자는 도달일 제외 3일 전, 관청은 발행 전 제본 2부를 내무성에 납본해야 했으며, 이 제도는 1945년까지 이어졌다. 2부 중 1부는 정본(正本)이라 하여 검열 후 발매금지, 삭제, 차관 개정 등의 처분을 받았고, 다른 1부는 부분(副本)으로 우에노도서관(上野図書館)에 교부되었다(山下信庸, 1968).

이처럼 출판법에 의한 강제 납본은 검열과 출판 통제를 위한 수단인 한편 도서관에 도서를 회부하고 보존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일제강점기 전후 근대 일본의 납본 제도는 강제적 의무와 엄격한 행정 처분을 수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납본 제도의 틀이 되었다(山下信庸, 1968)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림 1>은 조선과 일본의 납본 과정을 도식화한 것으로, 조선인은 더 많은 부수와 짧은 기한의 납본을 요구받았으며, 그 과정이 복잡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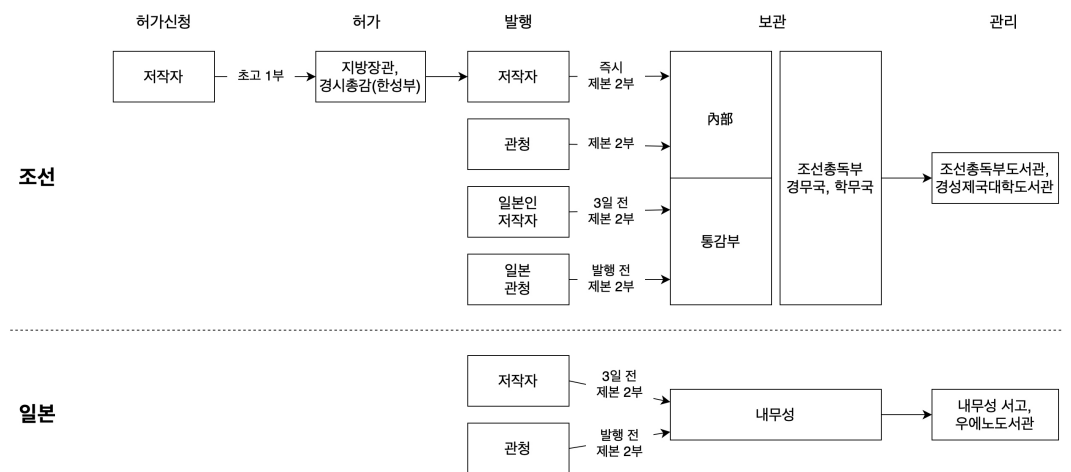
### 3. 연구 결과

#### 3.1 경무국납본목록의 발행

경무국납본목록은 1937년 1월 『문헌보국』의 제3권 제1호에 처음 수록되어 『문헌보국』이 폐간된 제10권 제12호까지 걸쳐 매월 수록되었다. 경무국납본목록은 『문헌보국』 제10권 제10호에 한 차례 누락되었는데, 그 까닭은 해당 권호의 목차와 전후 9월호와 11월호의 권두언에서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경무국납본목록의 구성은 『문헌보국』 제3권 제1호에서 주제명 표목과 서명, 책 수, 편저자, 발행지, 발행소, 정가로 이루어졌으나 제5권부터 간소화되어 주제명 표목, 서명, 발행자를 기본항목으로 가졌다. 이후 제8권부터는 주제명 표목이 생략되어 서명, 발행자만이 정리되었다(<표 2> 참조).

항목의 간소화는 단순한 편집상의 변화라기



<그림 1> 조선과 일본의 납본 과정

〈표 2〉 『문헌보국』 내 경무국납본목록의 구성

발행정보		구성
제3권(1937)	1-8호	주제명표목, 서명, 책수, 편저자, 발행지, 발행소, 정가
	9-12호	주제명표목, 서명, 책수, 편저자, 발행지, 발행소
제4권(1938)	1-3호	주제명표목, 서명, 책수, 편저자, 발행지, 발행소
	4-12호	주제명표목, 서명, 편저자
제5권(1939)	1-4호	서명, 발행자
	5-12호	주제명표목, 서명, 발행자
제6권(1940)	1-12호	주제명표목, 서명, 발행자
제7권(1941)	1-10호	주제명표목, 서명, 발행자
	11-12호	서명, 발행자
제8권(1942)	1-12호	서명, 발행자
제9권(1943)	1-12호	서명, 발행자
제10권(1944)	1-12호	서명, 발행자

보다는, 전쟁 심화로 행정 권한이 정보과로 이양되는 제도적 변화와 자료 정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 그리고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본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경무국납본목록 전권에서는 권호별 상이한 기준에 따라 납본 도서가 분류되어, 수록 도서의 주제 파악이 어려운 특징을 보였다. 이때 하나의 표목에 성격이 다른 주제들도 함께 묶여 분류된 경우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1937년 발행된 제3권 제1호의 '종교/수양'은 동권 제3호에는 '종교'로, 제4호에는 '불교/기독교'로 표기되었다. 다른 예로 제3권 제11호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농업/위생/국방'이 동일 표목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총독부도서관 분류표를 활용하여 전체 도서의 주제를 재정리하였다(〈표 3〉 참조).

편집상 변화로 제3권은 세로쓰기 2단 구성이었으나 제4권 제4호부터는 3단으로 바뀌었고, 제5권 제1호부터 『문헌보국』 개신(改新) 간행에 따라 가로쓰기 3단으로 전환되었다. 날짜 표

기도 변경되어 제목 하단 朝鮮總督府圖書課調의 발행자 표시가 생략되고, '自'와 '至'를 사용한 월·일 표기가 아라비아 숫자 연·월 표기로 바뀌었다. 또한, 제5권 제1호부터 경무국 납본목록은 독립된 페이지가 아닌 다른 기사와 페이지를 공유하며 점차 후반부에 배치되었다(〈그림 2〉,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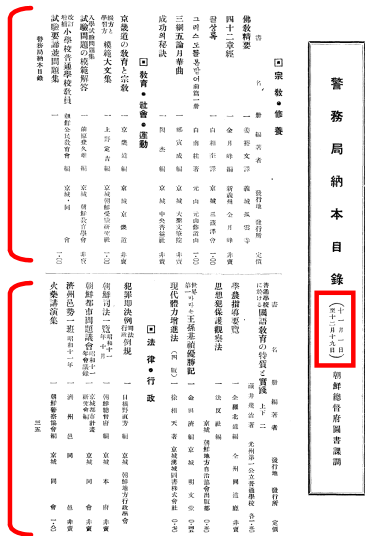
### 3.2 경무국 납본 도서의 분석

#### 3.2.1 주제

경무국납본목록에 수록된 6,053건의 납본자료는 '어학·문학', '교육·사회'가 각 1,171건, 1,114건으로 가장 많고, '이학·의학', '공학·군사'가 각 129건, 185건으로 가장 적었다. 주제별로 살펴보면, '종교·철학'은 총 425건으로 나타났으며, 기독교와 불교가 각 169건, 106건으로 중심을 이루었다. 그중 설교집, 경전, 개별 사찰 자료가 다수 포함되었다. '교육·사회'는 교육 648건, 사회 466건으로, 일본어 교육과 독본이 각 149건, 66건 납본되었다. 일본어 교육

〈표 3〉 경무국납본목록의 주제 분류

NO	조선총독부도서관 분류표 주류	경무국납본목록 주제
1	종교·철학	수양, 유가, 불교, 기독교, 유교, 그리스도교, 윤리, 경서, 신도
2	교육·사회	사회산업, 교과서, 시험, 학교관계, 학습참고서, 가정, 가사, 국민정신, 시사
3	법률·정치	행정, 법규, 법제, 예규, 법령, 체계규, 경찰, 시국관계, 지나문제, 기록, 계기
4	경제·통계	교통, 통신, 철도, 전보, 재정, 상업, 금융, 회사, 경무, 납세, 세, 운수, 무역, 도량형, 조사
5	어학·문학	문법, 와카, 창가, 서한, 소설, 시문, 문집, 서한문, 동화, 시가, 시문집, 척독, 연설, 수필, 가시, 가곡, 가곡집, 가집, 강연, 진서, 학문, 학기
6	역사·지리	항릉, 전기, 계보, 세보, 안내기, 지지, 기행, 역사관계, 군세일반, 지도, 군지, 고적, 족보, 계보류, 시찰, 안내, 사적, 전기(傳記)
7	이학·의학	관측, 침술, 기상, 력, 약학, 약물학
8	공학·군사	국방, 토목, 공사, 공업, 도시계획, 화약, 전기(電氣)
9	산업·예술	농업, 농산업, 농공업, 수의, 상공업, 광산, 광업, 공장, 위생, 음악, 작곡, 서화, 서도, 공예, 체육, 운동, 연극, 박물관
10	잡찬	잡서, 잡록, 잡, 기타, 사진, 잡지, 명감, 총기, 보고, 년, 연보, 추록, 색인, 목록, 술수, 서목



〈그림 2〉 제3권 제1호 본문



〈그림 3〉 제5권 제1호 본문

자료는 주로 학교용 독해서이며, 사회 분야에서는 '青年讀本 上卷' 등 일상생활에 관한 독본류가 발행되었다. '법률·정치' 주제는 607건으로, 각종 법령과 예규집으로 구성되어 '皇國警察精神' 등 황국 경찰 정신이 반영되었다.

'경제·통계'는 총 686건이며, 금융, 식산은행, 납세 해설서가 다수 수록되었다. '어학·문학'은 어학 115건, 문학 1,056건으로 총 1,171건이다. 그중 시문집이 342건 발간되었으며 신소설, 연애소설, 고전소설의 재판도 다수 포함되었다.

‘역사·지리’ 납본은 총 942건으로, 족보류가 406건으로 최다 수록되었다. ‘이학·의학’은 이학 38건, 의학 91건으로 총 129건이 납본되었으며, 그 가운데 기상관측과 약학, 결핵 예방 자료가 다수 포함되었다. ‘공학·군사’는 공학 97건, 군사 88건으로 총 185건이 납본되었다. 광업·광물, 방공·방호 자료가 각 25건, 15건이 수록되었다. ‘산업·예술’은 산업 522건, 예술 63건으로 총 585건 납본되었으며 농업과 왕가 소장 미술품에 관한 자료가 다수 포함되었다. ‘잡찬’ 주제 납본은 총 208건으로, 명부, 색인 등이 확인되었다. 10개 주제별 납본 수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발행 기간 납본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38년 1,089건으로 일시적 증가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폐간된 1944년에는 516건으로 하락하며, 간행이 시작된 1937년의 811건보다도 낮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 1938년 국가총동원법 시행,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전쟁이 심화되며 도서 발행과 출판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졌으며, 그 결과 납본도 국가적 상황에 따른 출판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2.2 발행인

경무국납본목록에는 전체 6,053건 중 5,991건에 발행인 정보가 표기되어 있다. 최다 발행인은 朝鮮總督府로 총 431건이며, 그중 교육·사회 분야가 14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어 개인 단위로 조선일보 사장 方應模가 62건, 제국지방행정학회의 경영 후계자 大谷仁兵衛이 58건, 박문서관의 경영 후계자 瑞原聖이 56건, 영창서관의 경영자 姜義永이 55건, 관청 단위인 경성 朝鮮銀行에서 51건의 납본을 발행하였다(<표 5> 참조).

주제별 핵심 발행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주제에서 10건 이상을 납본한 발행인을 조사한 결과 총 50인이 나타났다. 50인의 발행 주체는 개인 22인, 관청 11곳, 협회 12곳, 회사 5곳이다. 주제별로는 ‘어학·문학’이 15인으로 가장 다양했으며, 다음으로 ‘교육·사회’ 9인, ‘경제·통계’ 8인, ‘법률·정치’ 7인의 주요 발행인이 나타났다(<표 6> 참조).

주요 발행인 수가 적은 주제는 ‘종교·철학’

<표 4> 주제별 납본 수

	종교·철학	교육·사회	법률·정치	경제·통계	어학·문학	역사·지리	이학·의학	공학·군사	산업·예술	잡찬	계
1937	43	173	51	44	148	207	11	21	94	19	811
1938	48	194	134	119	170	227	19	18	122	38	1,089
1939	89	92	85	90	233	163	24	26	80	15	897
1940	87	60	75	77	142	114	5	23	68	30	681
1941	48	95	56	76	176	69	20	38	57	21	656
1942	52	148	87	102	86	57	22	10	82	32	678
1943	48	175	54	123	116	66	21	28	61	33	725
1944	11	177	65	55	100	39	7	21	21	20	516
계	426	1,114	607	686	1,171	942	129	185	585	208	6,053

〈표 5〉 50건 이상 납본 발행인

발행인	납본 수	구분
朝鮮總督府	431	관청(경성)
方應模	62	개인
大谷仁兵衛	58	개인
瑞原聖	56	개인
姜義永	55	개인
朝鮮銀行	51	관청(경성)

〈표 6〉 주제별 핵심 발행인

주제	발행인	납본 수	단위	주제	발행인	납본 수	단위
종교·철학	安震湖	20	개인	경제·통계	朝鮮鐵道協會	11	협회
	德川仁果	11	개인		盧益亭	70	개인
교육·사회	朝鮮總督府	141	관청	어학·문학	方應模	41	개인
	大谷仁兵衛	20	개인		姜義永	39	개인
	朝鮮公民教育會	20	협회		大山治水	27	개인
	國民總力朝鮮聯盟	19	협회		韓奎相	27	개인
	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	16	회사		曹俊卿	22	개인
	前原登久雄(編)	15	개인		申泰三	20	개인
	朝鮮敎學圖書株式會社	13	회사		瑞原聖	18	개인
	瑞原聖	13	개인		南昌熙	17	개인
	朝鮮圖書出版株式會社	11	회사		人文社	15	회사
법률·정치	朝鮮行政學會	56	협회		崔南周	14	개인
	朝鮮總督府	51	관청		李泰洙	12	개인
	大谷仁兵衛	32	개인		金東縉	11	개인
	朝鮮警察協會	14	협회		金海相德	11	개인
	司法協會	11	협회		西原奎相	10	개인
	朝鮮銀行	11	관청	역사·지리	朝鮮總督府	58	관청
	酒井與三吉	10	개인		至誠堂	10	회사
경제·통계	朝鮮總督府	71	관청	이학·의학	朝鮮總督府	14	관청
	朝鮮銀行	32	관청		平原宗軒(李泰浩)	10	개인
	平壤商工會議所	13	협회	공학·군사	朝鮮總督府	19	관청
	新義州商工會議所	11	협회		朝鮮總督府	37	관청
	朝鮮貿易協會	11	협회	산업·예술	全羅北道	16	관청
	朝鮮商工會議所	11	협회		朝鮮工業協會	11	협회
	朝鮮財務協會	11	협회	잡찬	朝鮮總督府	14	관청

과 ‘역사·지리’이다. ‘종교·철학’은 종교인 德川仁果, 安震湖의 개인 2명이며 ‘역사·지리’는 관청 朝鮮總督府과 회사 至誠堂이다. ‘교육·사회’ 주제의 주요 발행자는 총 9인으로,

전체 도서의 약 24.2%를 발행하였으며, 특히 朝鮮總督府가 12.7%를 차지해 관청이 ‘교육·사회’ 분야 자료 생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률·정치’ 주제에서는 발행자

7인이 전체 납본의 약 30% 비율을 가진다. 특히 식민통치기구 朝鮮總督府 외 출판사 帝國地方行政學會와 그 경영인 大谷仁兵衛가 발행한 88건을 통해 일본 내지(內地)에서 '법률·정치'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경제·통계'와 '산업·예술'의 주요 발행은 모두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공적 정리의 목적이 강했으며, 주제의 전문성과 관련된 발행인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산업·예술'의 경우, '예술' 주제 내 주요 발행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산업' 주제 관련으로 全羅北道와 朝鮮工業協會가 다수의 납본을 발행하였다. '어학·문학' 주제 내 10건 이상 발행자는 총 14명으로, 전체 약 30.4%의 비중을 가진다. 14인 가운데 13인의 발행자가 개인 단위였으며, 주로 역사 소설 및 고전소설 재간행에 참여하였다.

### 3.2.3 지역

1937년 1월부터 1938년 3월까지의 경무국납본목록에는 1,038건의 납본 자료가 수록되었다. 그 가운데 944건에 지역 정보가 기재되었으며, 총 155개의 지역명이 확인된다. 조선 8도와 경

성, 일본 내지(內地)를 기준으로 납본 수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발행지별 납본 수

발행지	납본 수
경성	551
강원도	14
경기도	22
경상도	131
전라도	87
충청도	39
평안도	55
함경도	34
황해도	8
일본	3
합	944

전체 납본 중 551건이 수도 경성에서 발행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경상도와 전라도가 각 131건, 87건으로 납본 비중이 높았다. 경상도의 경우 대구와 부산에서 각 31건, 24건이 발행되었고, 전라도는 광주와 전주에서 각 14건, 12건이 발행되어 납본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납본 주제에 따른 세 지역의 납본 수는 <표 8>과 같다.

<표 8> 발행지별 납본 자료의 주제

주제	경성	경상도	전라도
종교·철학	24	7	-
교육·사회	152	25	16
법률·정치	65	5	9
경제·통계	40	4	5
어학·문학	102	29	11
역사·지리	84	42	33
이학·의학	5	1	-
공학·군사	16	2	-
산업·예술	47	14	10
잡찬	16	2	3

납본 상위 3개 지역의 최다 주제는 '교육·사회', '어학·문학', '역사·지리'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특히 경성 납본 자료 551건 가운데 최다 주제는 '교육·사회', '어학·문학'으로 각 152건, 102건인 한편, '이학·의학'은 5건으로 가장 적으며, '공학·군사'와 '잡찬'도 각 16건의 적은 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납본에서 '어학·문학'과 '교육·사회'가 최다 주제이며, '이학·의학'과 '공학·군사'가 최소였던 경향과 유사하다. 이는 경성이 당시 출판의 중심지로, 전체 출판 흐름을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3.2.4 가격

납본의 판매 정가는 경무국납본목록의 제1권 제1호부터 동권 제8호까지 일부에만 기재되었으며, 제9호부터는 나타나 있지 않다. 정가가 표시된 납본은 총 223건으로, 가격 범위는 0.06圓부터 10.50圓까지이며, 전체 360건 중 168건이 2圓 미만이었다. 주제에 따른 정가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전체 주제 가운데 '교육·사회'는 과반수의

자료가 2.0圓 미만 가격에 판매되었다. '역사·지리' 주제는 0.20圓부터 10.50圓까지 가장 폭 넓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가운데 0.50圓 이하 자료는 총 22건으로 모두 지지와 지역 안내도였다. 반면, 동일 주제 내 족보류의 경우 0.70圓에서 10.50圓까지의 가격대를 가졌다.

한편, 비매 도서는 전체 360건 중 137건으로 '법률·정치', '경제·통계', '산업·예술', '잡찬' 분야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들 상당수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조직과 관청의 보관, 정리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 3.3 경무국 납본 도서의 양상

첫째, 일본어 교육이 강조되었다. '교육' 주제 납본 648건 가운데 일본어 교육 관련 납본은 총 149건으로, 발행연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1937년, 1942년, 1944년에는 '교육' 주제 30%가 넘는 비율을 보인다.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은 제1차 조선교육령(1911)에서 국어(國語) 보급을 목적으로 보통 교육을 실시한다고 언급되었으며, 1943년 경무국에 납본된 '朝鮮人ノ

<표 9> 납본 정가

주제 \ 정가	0-2미만	2-4미만	4-6미만	6-8미만	8-10미만	10이상	비매	계
종교·철학	6	-	1	-	-	-	4	11
교육·사회	57	3	-	-	-	-	14	74
법률·정치	5	1	2	-	-	-	7	15
경제·통계	6	-	-	-	-	-	17	23
어학·문학	33	4	1	-	-	-	19	57
역사·지리	34	11	5	1	2	1	45	99
이학·의학	3	1	-	-	-	-	3	7
공학·군사	3	4	1	-	-	-	3	11
산업·예술	18	4	-	-	-	-	20	42
잡찬	3	2	-	-	-	-	5	10

皇國臣民化に國語普及ヲ徹底セシメヨ'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본어 교육 자료에는 한글과 한문 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읽기와 쓰기, 경어 등 다양한 내용과 함께 일본어 기초 학습과 작문 교육에 주력한 것으로 확인된다(〈표 10〉 참조).

둘째, 족보류가 감소하였다. 족보류는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역사·지리' 전체 약 절반에 해당하였으나, 1941년 납본 수가 감소하여 1943년부터 약 5%의 비중을 가졌다. 경무국납본목록 간행이 시작된 1930년대는 일제강점기 중 족보 간행이 가장 활발한 시기였으나<sup>3)</sup> 1939년 이후 일본은 족보 간행을 제한하였고(동아일보, 1939), 1940년부터는 창씨개명이 시행되며(동아일보, 1940) 족보의 영향력이 줄었다. 경무국납본목록에서도 족보류는 194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으며, 1943년과 1944년의 납본 비율은 간행 초기 1937년과 1938년의 약 10분

의 1로 하락하였다. 이는 1930년대 이후 족보 간행이 억제된 제도적 흐름과 연결되며, 경무국납본목록이 사회 변화에 따른 족보 간행 양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임을 시사한다(〈표 11〉 참조).

셋째, 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다. 경무국납본목록이 발행된 20세기 초중반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외로 뻗어나간 시기이며, 당시 납본된 지도는 일본이 조선을 매개로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드러낸다. 경무국에 납본된 지도류는 총 31건으로, 1937년부터 1941년까지의 지도류는 지역 안내도, 행정구획도 등이 주를 이루었으나 1942년 이후에는 세계지도나 동아시아 지역을 다룬 '大東亞地圖' 등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1941년 '大東亞歐洲新地圖' 발간을 시작으로, 1942년 이후 전쟁에 활용될 수 있는 지도가 다수 제작되었다. 납본된 지도는 조선 내 만

〈표 10〉 '교육' 내 일본어 교육 관련 납본

발행연도	교육 주제 납본 수	일본어 교육 납본 수	전체 중 납본 비율(%)
1937	126	38	30.16
1938	114	17	14.91
1939	41	3	7.32
1940	37	5	13.51
1941	41	3	7.32
1942	89	29	32.58
1943	110	24	21.82
1944	90	30	33.33
계	648	149	22.99

3) 일제강점기 족보류는 1919년 3.1운동 이후의 탄압으로 감소하였고, 192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여 193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최재석, 1969). 1930년대 족보류의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의 통제 아래 정체성 확립, 노비제 폐지로 붕괴된 신분 제도와 족보 편찬 대상의 확대가 그 원인이 된다. 또한 근대 도입된 신식 인쇄 기술은 족보 간행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일반에서도 간행 증가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17).

〈표 11〉 ‘역사·지리’ 내 족보류 납본

발행연도	역사·지리 주제 납본 수	족보류 납본 수	전체 중 납본 비율(%)
1937	207	102	49.28
1938	227	118	51.98
1939	163	84	51.53
1940	114	61	53.51
1941	69	19	27.54
1942	57	17	29.82
1943	66	3	4.55
1944	39	2	5.13
계	942	406	43.10

〈표 12〉 ‘역사·지리’ 내 지도류 납본

발행연도	원표기	국문 번역	발행자
1937	釜山案內圖	부산안내도	河野祥信
	灰岩全圖	회암전도	稿本盛長
	平壤名勝舊蹟圖	평양명승구적도	張道斌
	灰岩市街圖	회암시가도	小倉安藏
	京城府東部方面一覽圖	경성부동부방면일람도	成松綠
	羅津市街地圖	나진시가지도	羅津商報社
1938	最新朝鮮全圖最新滿支要圖	최신조선전도최신만지요도	森田仙堂
	忠州群山(地圖)	충주군산(지도)	朝鮮總督府(編)
	京城府管內圖	경성부관내도	竹村學吉
	朝鮮族行案內圖	조선족행안내도	精行社出版部
	最近元山案內圖	최근원산안내도	森脇毅
	淸進郊外地籍圖	청진교외지적도	深谷平輔
1939	最新朝鮮全圖最新滿支要圖	최신조선전도최신만지요도	至誠堂
	鎮南浦府地番圖	진남포부지번도	韓政鉉
	大邱府市街地圖	대구부시가지도	領木 榮
	釜山案內圖(地圖)	부산안내도(지도)	河野祥作
	中部朝鮮地圖	중부조선지도	張在龍
1940	地番入大京城精密地圖	지번입대경성정밀지도	白川行晴
	地番八 奉天市地圖	지번팔 봉천시지도	至誠堂
	躍進朝鮮現勢圖	약진조선현세도	鳴元勸
	大東亞歐洲新地圖	대동아구주신지도	金本東進
1941	大東亞戰爭要圖	대동아전쟁요도	京城日報社
	太平洋全圖	태평양전도	林豹
	最新世界大地圖(鮮文版)	최신세계대지도(선문판)	大山治永
	世界現勢地圖	세계현세지도	林豹
	大東亞共榮圈地圖	대동아공영권지도	北鮮每日新聞社

발행연도	원표기	국문 번역	발행자
1943	地圖手帳	지도수장	林豹
	大東亞地圖	대동아시아도	林杓
	最新世界地圖	최신세계지도	至誠堂
	最新滿蒙要圖	최신만몽요도	京城至誠堂
	京城案内(地圖)	경성안내(지도)	至誠堂
	朝鮮近海海洋圖 16年度	조선근해해양도 16년도	本府水産試驗場
	朝鮮近海平年海況圖	조선근해평년해황도	本府水産試驗場
1944	京城案内(地圖)	경성안내(지도)	至誠堂
	朝鮮道路網圖(地圖)	조선도로강도(지도)	朝鮮總督府鑛工局土木課
	最新朝鮮全圖	최신조선전도	旨誠堂
	京城案内(地圖)	경성안내(지도)	至誠堂
	最新世界地圖	최신세계지도	至誠堂
	地球儀貼付用世界地圖	지구의첩부용세계지도	松川基柱

주와 몽골, 해역 등의 공간까지 포괄하며 대외로 팽창하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반면, 타 국가로의 외교적 공간 확장은 미비했다. 일본은 기존에 타국과의 타협에 기초한 조심스러운 팽창주의적 외교정책을 펼쳤으나,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1937년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독자적인 팽창을 보였다(장달중, 1989). 경무국에 납본된 자료 가운데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조선, 지나, 대만, 청나라를 제외하고 타국이 언급된 '정치' 주제 내 외교 관련 납본은 총 11건이었다(〈표 13〉 참조).

〈표 13〉 '법률·정치' 내 타국 관련 납본

발행연도	원표기	국문 번역	발행자
1937	最近の歐洲情勢とイタリーに就て	최근의구주정세와이탈리아에관하여	釜山府
	蘇聯を中心とする國際情勢(パンレット)	소련을중심으로하는국제정세(팜플렛)	同民會
1939	朝鮮在留歐米人並領事館員名簿	조선재유구미인및영사관원명부	本府
1940	歐洲大戰中に於ける獨逸の食糧政策	구주대전중에대한독일의식량정책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1941	世界情勢と躍進日本外交史	세계정세와약진일본외교사	平壤毎日新聞社
1942	米國の戰爭力	미국의전쟁력	西山力
	英米の殘虐政策	영미의잔학정책	中村秀雄
	すめらあじや	천황과아시아	酒井作藏
	世界に對する日本の宣言	세계에대한일본의선언	京城日報社
	日獨兩國間の戰友關係について	일독양국간의전우관계에관하여	京城日獨協會
1944	米國及英國に對する 宣戰の詔書奉體	미국및영국에대한 선전의조서봉체	春川師範學校教學研修會

타국 관련 납본 가운데 미국과 영국 관련 자료는 주로 전력을 다루었고, 소련과 독일 등은 국제정세를 다루었다. 그러나 국가별 주제적 공통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1930년대 이후 일본이 폐쇄적 제국주의 외교로 전환한 시대성을 반영한다.

넷째, 시국 독본과 법률의 시국성(時局性)이 심화되었다. 먼저, 전체 '사회' 주제 내 독본류는 총 66건으로, 1940년을 기준으로 성격이 전환되었다. 1940년 이전 독본류는 개인의 역할과 일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면, 1940년부터는 전쟁 심화에 따라 '국민총력', '전시'에 관한 안내서가 다수 발행되었다. 한편, 시국과 관련된 법률 납본 40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1939년까지는 '내선일체'나 '지나' 등 간접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이념이 드러났다면, 1940년 이후에는 '군', '전시' 등 전쟁에 관한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창씨개명 실시에 따른 관련 해설서와 징병 자료가 다수 발행되었다(〈표 14〉 참조).

다섯째, 전쟁 문학과 전기류가 등장하였다. '어학·문학' 주제 납본은 1941년 이후 전쟁과 무관한 출판물 제한 정책으로 문학의 다양성이 축소되어 납본 건수가 감소한 반면 '문학' 주제 내 전쟁과 관련된 납본은 1941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44년에는 13건이 납본되었다. 그 가운데 '岩本志願兵', '東方의새봄', '鑛山村', '處女地' 등 징병과 전시총동원을 옹호하는 문학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당시 문학이 전쟁의 심화 속에서 자유로운 창작을 벗어나 전쟁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전기류에서도 1941년을 기점으로 전쟁 관련 납본이 증가하였다. 전체 전기류는 총 71건으로, 1941년 이전에는 '오죽헌실기'와 '고

려인물지' 등 유학자, 역사적 인물 중심의 도서가 다수 발행되었으나 1941년부터는 과거의 장군까지 포함한 군사적 인물에 관한 전기류가 증가하여 총 12건 납본되었다(〈표 15〉 참조).

전기류는 단순한 인물 서술을 넘어 전통적 무사도 정신과 희생을 강조하고, 징병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특히 '李仁錫上等兵' 등 이인석이라는 인물을 통해 개인의 희생과 충성을 강조하는 영웅적 서사를 담아 전쟁 참여를 독려했다.

### 3.4 일본 납본 통계와의 비교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 통계표는 1928년 1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일본 내 납본 자료를 8개 주제로 정리한 것이다. 이 중 1937년부터 1944년까지의 통계는 경무국납본목록과 동일한 시기를 다루었으나, 주제 분류에서 일부 차이를 가진다. 예를 들어, '어학·문학'은 'Literature, Language', '역사·지리'는 'History, Biography, Geography, Travels'로 일치하는 반면, '교육·사회', '법률·정치'는 'Philosophy, Education'과 'Politics, Laws, Economics, Sociology, Statistics'에 혼재되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분류 주제가 일치하는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두 분야에 한하여 통계를 비교하였다(〈표 16〉 참조).

두 납본 통계표를 비교한 결과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주제는 동일한 시기 납본되었음에도 수적 차이를 보인다. 경무국납본목록에서 각 1,171건, 942건이 수록된 반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 통계표에는 각 17,877건, 11,890건이 납본되었다.

〈표 14〉 ‘법률·정치’ 내 시국 관련 납본 목록

발행연도	원표기	국문 번역	발행자
1937	-	-	-
1938	陸軍旅費規則研究	육군여비규칙연구	大石貢
	支那事變に關する重要法規解説	지나사변에관한중요법규해설	全羅南道
	事變後の北支	사변후의북지	時局研究所
	防空關係法令聚	방공관계법령취	坂本晃
1939	日支共存史	일지공존사	皆川留作
	史實より見たる内鮮一體	사실로보는내선일체	金聲律
	國民精神總動員聯盟要覽	국민정신총동원연맹요람	國民精神總動員忠淸南道聯盟
	國民精神總動員咸鏡北道聯盟概要	국민정신총동원함경북도연맹개요	咸鏡北道社會課
	國家總動員法第十一條	국가총동원법제11조	美濃部通遠
	新支那を觀る	신지나를보다	京城商工會議所
	支那の幣制と法幣に就いて	지나의폐제와법폐에관하여	朝鮮金融組合聯合會
	支那事變ニ關スル政府聲明並ニ總督訓示集	지나사변에관한정부성명및총독훈시집	朝鮮金融組合研究所
事變下に於ける轉業轉職希望者への指針	사변하에대한전업전직희망자에의지침	京城府時局總動員課	
1940	内鮮一體資料	내선일체자료	全羅北道
	大陸政策の基調としての内鮮經濟一體化に就いて	대륙정책의기조로의내선경제일체화에관하여	賀田直治
	史實より見たる内鮮一體	사실로보는내선일체	金容圭
	内鮮一體精義	내선일체정의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内鮮一體	내선일체	大朝實臣
	史實より見たる内鮮一體	사실로보는내선일체	金容圭
	長期建設과國民精神總動員	장기건설과국민정신총동원	國民精神總動員全羅北道聯盟
	國民精神總動員指導者心得	국민정신총동원지도자심득	山本義一郎
	半島に於ける氏設定改名手續	반도에대한씨설정개명수속	竺原敏二
	誰にもわかる氏の解説	누구라도아는성의해설	森田芳夫
氏制度の解説	씨제도의해설	本府法務局	
創氏及氏名變更手續と届出書式	창씨및씨명변경수속과계출서식	南雲幸吉	
「氏」解説設定及改名手續	「씨」해설설정및개명수속	李英浩	
氏創設の眞情神とその手續	씨창설의진정신과그수속	綠旗日本文化研究所	
朝鮮に於ける防共運動	조선에대한방공운동	朝鮮總督府警察局保安課	
1941	國民總力運動の指針	국민총력운동의지침	國民總力昌原郡聯盟
	國民總力運動概要	국민총력운동개요	細見正義
1942	時局と内鮮一體	시국과내선일체	西山 力
	東亞共榮圈	동아공영권	阿部駿一郎
	軍報道部と黎明大東亞を語る	군보도부와어명대동아를말하다	和田猪三郎
	米國の戰爭力	미국의전쟁력	西山 力
戰時に際し特に注意を要する諸法令	전시의때에특히주의해야하는제법령	朝鮮銀行調査課	
1943	事變前後	사변전후	姜義永
	徵兵事務摘要	징병사무적요	朝鮮行政學會
	防空事務應門解答要領	방공사무응문해답요령	鮮銀庶務課
1944	大東亞共榮圈 興亞綜覽第3輯	대동아공영권 흥아종합제3집	共存社大陸連絡部
	戰時特別調停制度解説	전시특별조정제도해설	本府法務局

〈표 15〉 ‘전기류’ 내 전쟁 관련 납본 목록

발행연도	원표기	국문 번역	발행자
1937	-	-	-
1938	-	-	-
1939	壯烈李上等兵	장렬이상등병	吉田安治
	忠魂天勝李志願兵	충혼천승이지원병	朝鮮畫劇研究社
	陸軍歩兵大尉乃台智の生ひ立ちと戦死	육군보병대위乃台智의 성장과 전사	乃台兼治
1940	朝鮮武士英雄傳	조선무사영웅전	丁來東
1941	二十世紀の美雄 히틀러一傳	20세기의미웅히틀러일전	金井清郎
1942	-	-	-
1943	李仁錫上等兵	이인석상등병	金好善
	李仁錫上等兵と其の妻	이인석상등병과그아내	金好善
	李仁錫上等兵と其の妻	이인석상등병과그아내	朴永朗
	李仁錫上等兵と其の妻	이인석상등병과그아내	朴永朗
	李仁錫上等兵とその妻	이인석상등병과그아내	朴永朗
	少國民繪本 李仁錫上等兵	소국민증본 이인석상등병	金海相德
1944	李仁錫上等兵ソノ妻	이인석상등병그의처	朴永朗

〈표 16〉 경무국납본목록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납본 통계표의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납본

발행연도	경무국납본목록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납본 통계표	
	어학·문학	역사·지리	어학·문학	역사·지리
1937	148	207	2,139	1,475
1938	170	227	2,251	1,832
1939	233	163	2,265	1,623
1940	142	114	2,768	1,841
1941	176	69	2,193	1,407
1942	86	57	3,085	1,645
1943	116	66	2,316	1,234
1944	100	39	860	833
계	1,171	942	17,877	11,890

납본 수의 차이는 당시 조선과 일본 간 독서 층과 지식인 계층의 한계, 출판 자본을 비롯한 출판업의 격차를 반영(서광덕, 2020)하는 한편, 각국에 적용된 출판 검열 강도의 차이와도 연관이 있다. 납본 과정에서 일본은 희망에 의한 신고제를 적용받았으나 조선은 검열과 납본 허가제에 기반했기에 그 제도적 차이가 납본 건

수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주제의 납본 변화에서 구체적인 시기적 공통점은 찾기 어려우나,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납본 수는 양국 모두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전시 체제의 강화로 인해 전체 납본 수가 감소하고, 전쟁 관련 주제들이 상대적으로 우선시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시국에

부합하는 분야가 강조되면서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주제 내 위축이 발생하였다.

#### 4. 결 론

본 연구는 경무국의 검열 문건 중 하나인 경무국납본목록 95개호와 수록 납본 6,053건을 대상으로 발행 배경과 편집상의 특징을 검토하고, 납본 자료를 재분류하여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발행한 경무국납본목록을 대상으로 95개호의 발행 배경과 체제를 검토하고, 수록된 납본 6,053건을 재분류하여 유형별 특징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무국납본목록의 편집 서식은 1939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기존 세로쓰기 2단은 가로쓰기 3단으로 전환되었고, 제목 아래 한자로 표기된 발행자와 월·일이 아라비아 숫자의 연·월 표기로 바뀌었다. 또한 1939년 이후 구성이 축소되어 1942년에는 서명, 발행자 정보만 기재되었다.

둘째, 경무국납본목록 내 151개 주제명 표목을 재분류한 결과, '어학·문학', '교육·사회', '역사·지리'는 각 1,171건, 1,114건, 9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학·의학', '공학·군사'는 각 129건, 185건으로 가장 적었다.

발행인을 분석한 결과, 50건 이상 납본한 주요 발행인은 개인과 관청이며, 그 중 朝鮮總督府가 431건으로 가장 많았다. 10건 이상 납본한 발행인은 주제에 따라 유형이 달라져, '경제·통계', '법률·정치'는 관청, '어학·문학'은 개

인이 주요 발행인으로 나타났다.

발행지는 수도 경성을 중심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발행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간 출판 불균형과 도시 자본에 따른 납본의 차이가 나타났다. 경성의 납본은 전체 주제 분포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 당시 출판 흐름을 대표하는 중심지로 확인되었다.

발행 가격은 대부분 2圓 이하 가격에 유통되었고, 그중에서도 '교육·사회' 주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매 자료는 주로 관청 발행으로, 보관 및 정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되었다.

한편, 납본 도서의 주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분야에서 읽기, 말하기, 한자, 영어 등 다양한 일본어 교육 도서가 납본되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발행된 일본어 기초 학습과 작문 교육서가 다수 포함되었다.

둘째, 족보류 납본이 감소하였다. 족보류는 1930년대 출판 증가 이후, 족보 통제와 창씨개명으로 발행이 제한되어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본 연구는 경무국납본목록의 통계로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공간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1941년 이후 지도류에서 태평양, 세계 등 표현이 증가한 반면, 정치 분야에서는 타국 관련 주제가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일본이 팽창 전략을 추구하면서도 외교 분야에서는 관계를 단절한 것에 따른 결과를 시사한다.

넷째, 시국의 변화에 따라 독본과 법률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1940년 이전에는 가정과 생활 독본과 창씨개명, 호적 등 사상 통제 법률 자료가 주를 이루었으나, 1940년을 기점으로 국민총력, 전시 관련 독본이 증가하고, 관련 법률

자료가 다수 발행되었다. 이를 통해 본격적인 징병과 전쟁 선전 정책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전쟁 문학과 전기류 납본이 증가하였다.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주제의 전체 납본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쟁 주제 도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개인의 영웅적 서사와 무사도 정신을 강조하는 서적이 포함되어 전쟁 선전 목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 통계표와 경무국납본목록의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주제를 비교하였다. 양국 간의 출판업 격

차와 출판 검열 강도 차이에 따른 납본 건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어학·문학'과 '역사·지리' 주제는 전쟁 심화로 중요도가 감소하면서 납본 수가 줄어드는 공통된 추세를 보였다.

연구의 결과 경무국납본목록은 일제강점기 사회 통제 및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사료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무국 납본목록의 발행 정보를 정리하고, 납본 자료 전체의 특성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를 통해 분석된 결과는 향후 검열 관련 자료 비교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統監府 (1910.05.28.). 『公報』. 제154호.  
 朝鮮總督府 (1909.2.26.). 『官報』. 제4311호.  
 朝鮮總督府 (1911.09.01.). 『官報』. 제304호.  
 朝鮮總督府圖書館 (1935-1944). 『文獻報國』. 1-10.  
 검열연구회 (2011). 식민지 검열: 제도·텍스트·실천=colonial censorship: Institution-text-practice. 서울: 소명.  
 국립중앙도서관 (2017). 족보, 나의 뿌리를 찾아가다.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2012). 일제강점기의 사범.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n.d.). 역사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역사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출처: [https://hgis.history.go.kr/pro\\_g1/mainPage.do;jsessionid=KLz84swEhgtXGREEb5sGF-DGQsKPNmob2EsWCwUw.node20](https://hgis.history.go.kr/pro_g1/mainPage.do;jsessionid=KLz84swEhgtXGREEb5sGF-DGQsKPNmob2EsWCwUw.node20)  
 김기태 (2012). 근대 일본의 출판통제정책 연구: 메이지 시대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38(1), 33-55.  
 김선영 (2023). 일제에 의한 조선 도서 및 기록류 관리체계의 재편과 그 의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https://doi.org/10.23170/snu.000000179448.11032.0000209>  
 동아일보 (1939.02.05.). 『新春朝鮮出版界 大活氣//文學出版이 斷然優勢族譜는 不許可方針』

- 月中의文集 族譜發刊은半減 出版業者 爭先待機!//圖書課談」.  
동아일보 (1940.02.12.). 「今日부터 創氏制를 實施 休日이라도 届出受理」.  
문한별 (2013a). 『조선총독부 금지단행본목록』과 『조선출판경찰월보』의 대비적 고찰: 출판 금지 단행본 소설의 특징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7, 441-464.  
문한별 (2013b). 일제강점기 단행본 납본 목록에서 발견된 새로운 소설들의 의미: 『조선출판경찰월보』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2, 261-279.  
문한별 (2017). 『조선출판경찰월보』에 수록된 납본 도서의 시기별 변화 양상과 의미: 1, 2차 납본 도서의 성격 변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9, 35-59.  
문한별 (2019). 『조선출판경찰월보』 수록 아동 서사물의 검열 양상과 의미. 우리어문연구, 64, 37-72.  
박헌호, 손성준 (2010). 한국 근대문학 검열연구의 통계적 접근을 위한 시론: 『조선출판경찰월보』와 식민지 조선의 구텐베르크 은하계. 외국문학연구, 38, 193-224.  
서광덕 (2020). 동아시아 근대 지식네트워크의 형성: 동아시아 근대 출판의 성립과 이동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48-56.  
손지연 (2007). 식민지 조선에서의 검열의 사상과 방법: 검열 자료집 구축 과정을 통하여. 한국문학연구, 32, 129-178. <https://doi.org/10.20881/skl.2007..32.004>  
우시지마 요시미, 문한별 (2017). 1920년대 중반 조선총독부의 검열문건 연구: 『이수입 불온인쇄물 기사개요』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72, 249-278. <https://doi.org/10.15565/jll.2017.12.72.249>  
유춘동 (2016). 방각본 소설의 검열본과 납본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44(2), 7-22.  
<https://doi.org/10.17258/JIB.2018..75.179><https://doi.org/10.17258/JIB.2018..75.179>  
이중연 (2005).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출판, 독서 통제. 한국문화연구, 8, 95-122.  
장달중 (1989). 제국주의 전쟁과 외교정책: 소화초기(1925~45)의 일본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32(1), 235-268.  
정근식, 최경희 (2006). 도서과의 설치와 일제 식민지출판경찰의 체계화, 1926-1929. 한국문학연구, 30, 103-169.  
최재석 (1969). 일제하의 족보와 동족집단. 아세아연구, 12(4), 219-264.  
Mitchell, Richard H. (1983). *Censorship in Imperial Japa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內閣官報局 (1887-1912). 法令全書 明治8年. 東京: 內閣官報局.  
內閣官報局 (1887-1912). 法令全書 明治20年 上卷. 東京: 內閣官報局.  
統監府 (1893.4.14.). 『官報』. 제2934호.  
國立図書館 (1928.01. - 1945.09.). 國立図書館に納本された図書の部門別、年次別統計表(G・H・Qの要請により作成せるもの). <https://doi.org/10.11501/11493747>  
康弘 奥平 (1967). 日本出版警察法制の歴史的研究序説-4-. 法律時報, 39(8), 66-73.

山下信庸 (1968). わが國の出版物の納本制度について-民間出版物の部. 東京: 國立國會図書館.  
 名津子 尾崎 (2019). 津田事件の文脈 — 内務省検閲と岩波書店 —. 人文社會科學論叢, 6, 311-32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ensorship Studies Group (2011). *Colonial Censorship: Institution-Text-Practice*. Seoul: Somyung Press.
- Chang, Dal-Joong (1989). Imperialist war and diplomatic policy: focusing on Japanese foreign policy in the early Showa period (1925-1945).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32(1), 235-268.
- Choi, Jae-Seok (1969). Genealogies and kinship groups under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12(4), 219-264.
- Jung, Keun-Sik & Choi, Kyeong-hee (2006). The book department and the systematization of Japan's publication police in Korea, 1926-1929. *The Studies in Korean Literature*, 30, 103-169.
- Kim, Ki-Tae (2012). Modern Japan's publication control policies: based on the age of Meiji Restoration. *Studies of Korean Science*, 38(1), 33-55.
- Kim, Sun-Young (2023). Reorganization of Joseon state-owned books and records management system by Imperial Japan and its meaning.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ttps://doi.org/10.23170/snu.000000179448.11032.0000209>
- Lee, Joong-Youn (2005). The publication & reading control of the imperial Japan in Chosun after the beginning of Sino-Japanese War. *The Korean Cultural Studies*, 8, 95-122.
- Moon, Han-Byoul (2013a). A contrast study on government-general banned books list & Chosun Gyeongchal Wolbo.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in International Context*, 57, 441-464.
- Moon, Han-Byoul (2013b). The significance of the new novels in the Chosun Gyeongchal Wolbo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urnal of Literary Theory*, 52, 261-279.
- Moon, Han-Byoul (2017). Aspect of periodical transition and definition of presentation copy in included in 『Joseon Chulpan Gyeongchal Weolbo』: focusing on characteristic changes of first, second presentation copy.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79, 35-59.
- Moon, Han-Byoul (2019). Aspects and significance of censorship of children's narratives included

- in Joseon Chulpan Gyeongchal Wolbo. *The Studies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4, 37-72.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2012). *Justi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Gwacheon: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 *Historical GIS Database*. Historical GIS Database. Available: [https://hgis.history.go.kr/pro\\_g1/mainPage.do?sessionId=KLz84s\\_wEhgtXGREEb5sGF-DGQsKPNmob2EsWCwUw.node20](https://hgis.history.go.kr/pro_g1/mainPage.do?sessionId=KLz84s_wEhgtXGREEb5sGF-DGQsKPNmob2EsWCwUw.node20)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7). *Jokbo: Tracing My Lineag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Park, Heon-Ho & Son, Sung-Jun (2010). A censorship study on the modern literature of Korea via statistical approach: the publication police monthly of Korea and the Korean version of Gutenberg galaxy under Japanese colonial period. *Foreign Literature Studies*, 38, 193-224.
- Seo, Kwang-Deok (2020). *Formation of Modern Knowledge Network in East Asia: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and Movement of Modern Publishing in 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n Cultures, Busan.
- Son, Ji-Youn (2007). Concepts and methods of censorship in colonial Chosun through structural process of the censorship documents. *The Studies in Korean Literature*, 32, 129-178. <https://doi.org/10.20881/skl.2007..32.004>
- Yoo, Choon-Dong (2016). A study on banggak-bon novels' censored edition and nap-bon. *The Society for Korean Language & Literary Research*, 44(2), 7-22. <https://doi.org/10.17258/JIB.2018..75.179><https://doi.org/10.17258/JIB.2018..75.179>
- Yoshimi, Ushijima & Moon Han-Byoul (2017). Censorship document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in the mid-1920s: focusing on the "Summary of Imported Disquisition Publication Articles". *The Journal of Lang. & Lit.*, 72, 249-278. <https://doi.org/10.15565/jll.2017.12.72.249>